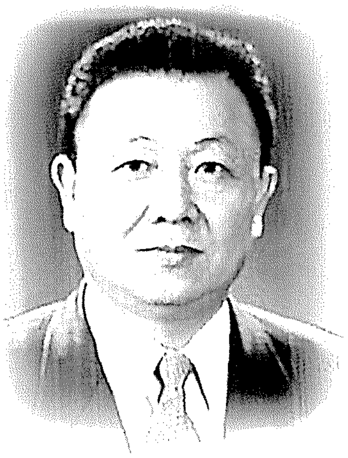
초심으로 돌아가자

2007년도부터 공공분야 일정 금액 이상의 정보화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관련 법안이 2005년도 12월 말에 공포되었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조만간 공포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정보화의 제일선에 있는 필자와 IT 관련 종사자에게는 기회인 동시에 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글 | 전용운 kica3@orgio.net
한국전산원공인감리인
정보기술경영사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공인정보보호관리사(CISM)
정보보호체제인증심사원
현재 한국정보통신감리평가단 대표
(사)한국컴퓨터사용자협회 자문위원회 수석부회장

컴퓨터가 비트의 조화로 생명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만, 외형이나 능력에서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 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변신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 영역을 끝없이 확장하고 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컴퓨터의 번영과 함께 결코 짧지 않게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직장과 가정 그리고 사회적인 성공,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는 오십대 초반의 남성으로 볼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좀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흐르는 강물과 같은 이 시대의 흐름에 빠져 사회적 전성기가 지나 버린 한물간 남성으로, 지쳐가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 이러한 부정적 사고가 언제부터 자리잡았는지 필자도 잘 모른다. 단지 직장생활 초기부터 20년 가까운 기간까지는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열정과 긍지를 갖고 즐겁고 행복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 나머지 10년 가까운 세월 속에서 국가적인 어려움인 IMF를 겪고, 공공 · 일반기업 등 어떤 분야든지 정보화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정보시스템 감리분야에 후발주자로 뛰어들어 각고의 6년이란 세월을 보내는 과정에서 필자도 모르게 침투된 것인가 의심해 본다.

2007년도부터 공공분야 일정 금액 이상의 정보화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관련 법안이 2005년도 12월 말에 공포되었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조만간 공포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정보화의 제일선에 있는 필자와 IT 관련 종사자에게는 기회인 동시에 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기회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동안 부분적으로 시행되었던 정보시스템 감리의 효과가 증명되어 법으로 제도화됨에 따라 정보화에 임하는 IT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개선과 기술능력 향상으로 보다 차원 높은 정보화 투자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IT 관련 종사자들의 조직 내 인정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향후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정보시스템 감리시장이 확대되며, IT 전문가로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현실 세계에서 탈락될 수 있다.

필자도 그렇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 누구에게나 직장생활 초년 시절이 있었을 게다. 변화의 시대에서 그때의 희망과 열정을 다시 품어보는 걸 어떨까. The Users